

혁신벤처단체협의회 -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

‘글로벌 Top3 혁신·벤처 대한민국 공약 보고회’ 개최

-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등 혁신단협 제안정책 중 33개 ‘후보 공식공약’에 반영 -

- 혁신벤처단체협의회(이하, 혁신단협)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 위원회,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, 정책본부가 7일(월)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‘글로벌 Top3 혁신벤처 대한민국 공약 보고회’를 개최했다.
-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, 장석영 본부장, 양동우 본과장,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하준경 위원장, 송재도 본과장, 정책본부 서왕진 부분부장 등이 참석했다.
- 혁신단협은 지난 2021년 10월 8일 ‘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’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집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전달했다. 또한 지난 2월 9일 ‘디지털 대전환과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’를 개최하기도 했다.
- 이런 과정을 거쳐 민주당 선대위는 혁신단협 제안정책 중 총 33개를 공약에 반영하였다고 보고했다.
- 구체적으로 혁신벤처업계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10조 규모의 모태펀드 투자와 대규모 투자를 위한 K-비전펀드 조성, 세제지원 확대, 제도전 지원체계 강화,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낙찰 관행 개선, 중소기업 전용 R&D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.
- 또한, 혁신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규제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,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의 민간주도성 강화가 포함됐고, 신·구 산업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,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, 과학기술 혁신전

락과 인공지능(AI) 활성화 등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도 담겼다.

- 민주당 선대위는 공약집에서 제시한 신경제, 공정성장 비전의 달성, 그리고 창의와 혁신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벤처기업이 지금 보다 더 우리경제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강조했다.
- 또한,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135조 원의 과감한 투자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등의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신기술·신산업분야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,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 300만개, 유니콘 기업 100개와 같은 목표도 달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. 이후 행사에서는 혁신협의 추가 정책제언과 토론 또한 이루어졌다. (끝)